



선박 탄소포집 기술

국제 표준 선점 위한 협의체 가동

- 조선·해운·기자재 업계와 함께 '선상탄소포집장치 국제기준 개발 협의체' 발족
- 우리 기술의 국제 기준 반영으로 국제 저탄소 해운시장 주도권 확보 기대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4월 15일(수) 부산 한국선급 대회회의실에서 국내 조선사, 해운사, 기자재 업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'선상탄소포집장치(OCCS*) 국제기준 개발 협의체'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.

* OCCS(Onboard Carbon Capture System) 선박의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탱크에 포집하여 액화된 상태로 저장한 후 육상에서 폐기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장치

이번 협의체는 그간 국내 산업계의 선상탄소포집장치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, 우리 기술이 국제해사기구(IMO)의 탄소중립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다.

협의체에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국선급,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과 HMM, 삼성중공업, 한화오션, HD한국조선해양,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, 하이에코코리아, 파나시아 등 조선·해운·기자재 분야 핵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.

이날 발족식에서 참여 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고, 향후 기술 실증 데이터 공유 및 안전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논의를 긴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.

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"우리 신기술이 국제해사기구(IMO)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."라며, "K-해양 기술이 국제 저탄소 해운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	책임자	과 장	남창섭 (051-773-5830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홍 (051-773-5836)